

### 6세 소녀의 특별한 '경찰 임명식'

지난 7일 텍사스주 프리포트 경찰서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아비가일 아리아스(6)는 소아암의 일종인 윌름즈종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윌름즈종양은 신장에 생기는 종양으로, 어린이에게서 가장 흔한 복부 종양이다. 80~90%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지만 재발 시에는 생존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아비가일 역시 암이 재발한 경우로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비가일의 복부 종양은 폐로 번진 상태이며, 의료진은 더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아비가일의 어머니 일렌 아리아스는 "방사선 치료 등 모든 항암치료를 동원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이제 딸의 생사는 신의 손에 달렸고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있다." 고 설명했다.

프리포트 경찰서장 레이 개리베이는 지난 12월 프리포트 경찰서에서 열린 '산타와의 팬케이크' 행사에서 아비가일을 처음 만났다. 그 자리에서 경찰이 되는 게 꿈이라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은 레이는 소녀를 도울 방법을 고민했다. 그리고 지난 7일 그는 아비



가일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성대한 명예경찰 임명식을 거행했다.

프리포트 명예경찰에 임명된 아비가일은 꼭 맞는 전용 경찰 유니폼과 의무장비, 총기벨트를 전달받았다. 또 경찰관들 사이에서 당당히 경찰 선서도 했다. 경찰서장 레이 "아비가일은 병마와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 훌륭한 소녀는 명예경찰 행사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마법같은 순간을 선물했다." 고 눈시울을 붉혔다.

아비가일은 이 자리에서 "제 몸에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라며 "저는 이 '나쁜 놈들' 과 싸워 이겨 꼭 경찰의 꿈을 이루겠다." 고 환하게 웃었다.

### 주인 닮은 마네킹에게 속은 '깜짝지' 강아지



한시도 주인과 떨어지지 않으려던 반려견이 '가짜 아빠' 에게 깜짝 속아 넘어갔다. 지난 6일 동물전문매체 '도도' 는 반려견의 분리불안증을 단번에 해결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마크 페탈티는 11년 전 필라델피아 보호소에서 4살짜리 퍼그 한 마리를 입양했다. 쇼티라고 이름 붙여진 이 강아지는 그 날 이후 마크 뒤만 졸졸 쫓아다녔다. 그런데 쇼티는 15살에 접어들면서 분리불안증세가 나타났다. 잠시라도 마크와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했고 울부짖으며 생떼를 부리곤 했다. 출장이 잦은 마크가 집을 떠나면 그의 아내 크리스틴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쇼티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모두 허사였다.

어떤 것으로도 마크의 부재를 채울 수 없자 크리스틴은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마크와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보기로 한 것. 크리스틴은 베개로 남편을 닮은 형상을 만들고 옷을 입혀 쇼티 옆에 놓았다. 그러나 쇼티는 아빠가 아닌 것을 알아차렸고 더욱 거세게 울부짖었다.

포기하지 않은 크리스틴은 헬러원용품을 파는 상점에서 실물 크기의 마네킹을 구입했다. 그리곤 마크가 즐겨 입던 옷과 야구모자를 씌우고 심지어 문신까지 똑같이 그려 넣었다. 마네킹에서 마크의 냄새가 나도록 오래된 마크의 셔츠를 입히고 쇼티 옆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쇼티는 '가짜 마크' 옆에서 잠이 들었다.

크리스틴은 "자기 뒤만 졸졸 쫓아다니던 쇼티가 마네킹에게 훌쩍 빠지자 마크는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니냐며 서운해했다." 며 웃었다.

### 고향 어른들에게 세뱃돈 177만 달러 선물한 기업가



중국 춘절(설날) 기간 고향 사람들에게 1,200만 위안(약 177만 달러) 상당의 세뱃돈을 뿌린 통 큰 기업가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이다.

지난 9일 중국 쓰촨성 이릉현 출신의 정다칭(60)은 헬기를 타고 고향을 방문했다. 신장지역 천지그룹의 회장인 그는 2006년 포브스 선정 중국 부자 146위에 오른 인물로도 알려졌다.

올해 설에 그는 매우 특별한 나눔을 실천했다. 고향을

방문한 날 한 학교 운동장에 고향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다. 7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위한 식사 테이블 위에는 현금 홍빠오(세뱃돈) 다발이 쌓여 있었다.

일부 노인들은 직접 헬기에 올라 마을을 한눈에 둘러보는 호사도 누렸다. 이 밖에도 에어컨 500대, 냉장고 100대, TV 100대, 세탁기 등의 푸짐한 선물도 나누어 주었다.

정 씨는 줄곧 고향의 발전을 지원하고, 고향 어르신들께는 용돈도 두둑이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3년부터 이 지역에 69개 다리를 건설하고, 희망학교 5곳을 설립했다. 또한 장학금 제도를 통해 고향의 인재 육성에 앞장섰다. 빈곤 지역 가정과 노인들에게는 매달 200~300위안(약 45달러)씩의 위로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날 6만 위안(약 8,850달러)의 홍빠오를 받은 한 노인은 "꿈에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면서 기뻐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b>이민법</b>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b>부동산법</b>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b>상법</b>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